

‘뜨거운 감자 화웨이 어떻게’... 5G에 미래 건 하현회의 고심

(LG유플러스 부회장)

이달 중 5G 장비 업체 선정해야
여론·보안 리스크 등 이슈에도
업계에선 화웨이 도입 유력 전망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LG유플러스

‘통신사업자 틀에서 벗어난 사고의 전환과 강한 실행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이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되고 강조한 키워드다. 취임 이후 하 부회장이 꾀어야 할 첫 단추는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다. 현재 LG유플러스를 포함한 이동통신 업체는 무선사업의 수익 하락세를 벗어날 돌파구로 5G 이동통신 상용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가 반전을 맞을 기회도 5G 서비스 상용화에 있다. 하현회 부회장이 강조한 사고의 전환과 강한 실행력이 필요한 시점인 셈이다.

2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내달 5G 망 구축을 앞두고 이달 중

5G 핵심 장비를 공급할 업체를 선정한다. 하 부회장은 취임 이후 네트워크와 서비스 연구개발 부서가 상주하는 마국 사옥에 수시로 방문해 5G 상용화 준비를 직접 선두지휘하고 있다. ‘5G 시대의 사업

환경은 큰 도전이지만 동시에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할 만큼 5G를 신성장동력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장 5G 장비 도입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도 과제가 산적하다.

현재 시장의 최대 관심은 LG유플러스가 글로벌 장비 업체 중국 화웨이의 5G 장비를 도입할지의 여부다. 화웨이 5G 장비는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에서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 화웨이의 5G 장비가 전국망 대역인 3.5기가헤르츠(㎒) 대역에서 기술력에서 앞서고, 가격도 20~30%가량 저렴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장 5G 상용화가 급한 이동통신사 입장에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뿐 아니라 품질 면에서도 우수하다는 평을 받는 화웨이 장비 채택이 합리적일 수 있다.

이미 전임인 권영수 부회장이 화웨이 장비 도입을 공식화 한 바 있기 때문에 하 부회장 또한 이를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이나 KT와 달리 LG유플러스는 이미 롱텀에볼루션(LTE)에서 화웨이 장비를 도입한 경험도 있다. 5G 상용화 초기에는 통신망이 5G와 LTE 복합표준으로 구현되기 때문에 기존 LTE 망 구축 당시 도입한 장비를 연동해 쓸 수 있어 장비 호환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LG유플러스가 LTE 화웨이 장비를 구축했던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화웨이의 5G 장비를 도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화웨이의 ‘보안 이슈’다. 중국 정부를 등에 업은 화웨이의 5G 장비가 서방국가에 위협이 되는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미국에서는 화웨이의 장비가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 또 최근 호주 정부도 성명을 통해 외국 정부의 지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공급업체는 호주의 통신망을 허가받지 않은 접근이나 개입에 취약하게 할 것이라고 밝히며 사실상 화웨이의

진출을 막았다. 이웃나라인 일본 또한 정부 차원의 정보시스템을 도입할 때 중국 화웨이를 입찰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굳혔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의 부정적인 여론도 걸림돌이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화웨이 5G 장비 도입을 반대하는 게시글이 연달아 올라오는 등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화웨이 5G 장비 도입에 대해 우려하는 모양새다.

정부 입장에서는 화웨이 장비가 대거 도입될 경우 국내 생태계 주도권을 중국에 넘겼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하 부회장으로는 취임 직후 경영능력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하 부회장은 “변화와 혁신의 여정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하며 회사의 역동성 있는 사업전략을 예고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격과 기술력뿐 아니라 정치·외교적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AR 입체중계로 투구궤적까지 생생하게”

LG유플러스 ‘U+프로야구’



모델들이 LG유플러스의 ‘AR입체중계’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U+프로야구’에서 데이터와 그래픽을 활용한 ‘증강현실(AR) 입체중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AR입체중계는 프로야구 경기 중 실시간 그래픽과 데이터를 결합해 제공하는 중계 서비스다. U+프로야구는 9월 한달간 AR입체중계 서비스를 활용해 투구·타구·주루·수비 궤적 등의 데이터 그래픽을 프로야구 생중계 화면과 함께 제공한다.

AR입체중계 시 스트라이크, 히트싱, 삼진과 같은 투구에서는 구종·구속·회전수·특이사항 등의 데이터와 공의 궤적을 중계 화면에서 그래픽으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홈런, 안타 등 타구는 속도·발사각·비거리·특이사항 데이터를 제공한다. 도루와 점점 상황의 주루 플레이 시 이동 거리, 이동 시간, 속도, 첫발 스타트 등의 데이터를 하나의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LG유플러스는 내년 5G 상용화를 앞두고 실제 프로야구 경기에 증강현실(AR) 기술을 접목해 차별화된 5G 콘텐츠로 차세대 이동통신의 승기를 잡는다는 방침이다.

AR입체중계는 4일부터 30일까지 SP OTV에서 중계하는 2개의 경기 중 하나의 경기에 적용돼 총 24 경기에 서비스될 예정이다.

이사때 자리 비워도 폰으로 실시간 확인

SK브로드밴드-통인익스프레스

상호공동마케팅 업무협약 체결



이방열 SK브로드밴드 기업사업부부장(오른쪽)과 이후 통인익스프레스 회장이 지난달 31일 LTE 클라우드캠을 활용한 생중계 이사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이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SK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는 통인익스프레스와 지난달 31일 ‘상호 공동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사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통인익스프레스는 SK브로드밴드가 서비스하는 이사 생중계를 위한 롱텀에볼루션(LTE) 클라우드캠을 전국 75개 지점에 확대 제공한다.

이사 고객 중 희망하는 고객은 LTE 클라우드캠이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이사 장면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다.

맞벌이 부부나 바쁜 1인 직장인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고객이 직접 이사현장에 없더라도 거실, 안방, 주방 등 주요 장소에 LTE클라우드캠을 설치하면 이사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KT 웹 게임 자유롭게 즐긴다 월 2200원 ‘팝콘 게임 팩’

KT는 국내 ‘HTML5 게임’ 전문업체 모비게임과 손잡고 HTML5 게임 전용부가서비스 ‘팝콘 게임 팩’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HTML5 게임은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소프트웨어 없이 인터넷 브라우저만 있으면 PC, 스마트폰 등 어떠한 환경에서도 실행할 수 있는 웹 기반 게임이다.

팝콘 게임 팩 가입자는 월 2200원(부가세 포함)에 HTML5 게임 전용 사이트 ‘팝콘 게임’ 내 모든 게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 팝콘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 전용 ‘캐쉬(팝콘)’를 매일 제공받게 된다.

팝콘 게임 팩은 팝콘 게임 웹사이트 혹은 KT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입 가능하며 최초 가입 시 30일 동안 이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제6회 무안 황토갯벌축제

2018. 9. 7(금) ~ 9. 9 (일)

장소 무안황토갯벌랜드 일원

주요 행사

- 풍요갯벌 페어리드
- 황토갯벌 운저리 낚시 체험
- 낙지·장어 잡기, 농게 잡기
- MBC 축하공연(유명가수 출연)
- 내가 잡은 물고기 즉석요리체험
- 갯벌 머드탕, 황토탕, 황토놀이터 등

무안군